

전남 4명 중 1명 위기 때 대피할 곳 없다

행안부 국경감사

전남지역 주민 4명 중 1명은 위기상황 때 주민대피시설 부족으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동안울)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남지역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1035곳이며 수용가능인원은 147만418명이다. 이는 전남 전체인구 189만6424명의 77.5%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전남 주민 4명 중 1명꼴인 42만6006명은 위기상황 때 대피시설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같이 대피시설이 부족한 지자체는 6곳에 달한다. 충남이 65.6%로 가장 심각하고, 이어 전남(77.5%), 경북(78.3%), 충북(81.6%), 제주(99.1%), 전북(99.3%) 등이다.

반면, 서울시는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수용인원이 1805만여 명으로 수용률이 183.2%에 달했고, 광주도 주민대피시설 585곳에 201만3382명이 대피할 수 있어 수용률이 137.5%였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위기상황 시 주민대피 공간으로, 정부가 대피요도를 주목적으로 설치한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과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단체 등 소유 지하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공공용 주민대피시설로 구분된다. 정부지원시설은 북한 인접 지역인 인천·경기·강원에만 있다.

민방위 대피시설 1035곳 그쳐 42만6천여명 수용 못해...서울 수용률 183.2%·광주 137.5%

이재정 의원은 "유사시 주민안전을 담보하는 민방위 대피시설 수용률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민안전에서 지역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행안부와 지자체는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을 10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주민대피시설에 내진설계 등을 적용해 전

제지변에 대비할 수 있는 다목적 주민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세계호남향우회 광주비엔날레 방문

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고향방문단 400여명이 4일 광주비엔날레 관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국내 연안 미세플라스틱 오염 심각

부안 모항리 최다 검출... 전남 상대적으로 낮아

국내 연안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남해역은 다른 해역보다 상대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환경위해성 연구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동·서·남해 20개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평균 농도는 2776개/㎡로, 동·서·남해 해수표면 10개 해역의 해수표면 미세플라스틱 평균농도는 24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 20개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을 보면, 부안 모항리가 1만 4562개/㎡으로 가장 높았고 거제 흥남이 7333개/㎡, 안산 방아머리가 5929개/㎡로 나타났다. 전남해역인 해남 송평은

3439개/㎡, 고흥 신흥 2645개/㎡, 여수 만성리 2190개/㎡로 고흥과 여수는 전체 평균 농도 2776개/㎡보다 적게 검출됐다.

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남해, 서해, 동해 연안 10개 주요해역 표층수의 부유 미세플라스틱의 오염 정도를 조사한 결과, 울산 연안이 평균 4.73개/㎡으로 가장 높았고 거제 동부연안 4.22개/㎡, 영일만 4.54개/㎡ 순이었다. 광양만은 1.65개/㎡, 득량만은 1.12개/㎡로 전체 평균 2.46개/㎡보다 크게 낮았다.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거제·마산 해역에 서식하는 어류 소화관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마리당 1.54개로 조사됐다. 멸치(1.04), 청어(1.20), 도다리(1.33), 노래미(1.33), 아귀(2.17) 순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이고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된 수산물 유통을 감시하고 이를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폼페이오 "북 비핵화 '시간 게임' 안한다"

"경제적 제재 유지 아래 진전 만들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의 시한과 관련해 "우리는 빨리하고 싶지만, 시간 게임을 하지는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 비핵화 협상 시한과 관련해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 2년이 걸리면, 3년이 걸리면, 혹은 5개월이 걸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의 연장 선상에 있는 발언으로, 명시적인 시간표를 거둬내고 장기전에도 대비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초까지 조속한 비핵화를 완성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시간 싸움을 안 한다고 말했다. 시간표를 갖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2021년에 대한 나의 언급은 내 것이 아니다"며 "그것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정상들 간에 이뤄진 언급으로, 나는

그것을 반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그곳(평양)에서 만났을 때 2021년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그래서 나는 그들이 잠재적으로 합의할 준비가 돼 있는 시간표로서 이것(2021년 시한)을 단순히 반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하게 옳다.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이다"며 "이것은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뤄진 것보다 더 큰 진전을 만들었다"며 "더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목표(비핵화)를 달성할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공하는 여건 아래에서 진전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그것은 경제적 제재의 지속적인 유지이다. 우리에게 비핵화를 가져다줄 역량을 부여할 핵심 명제(제재 유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MB 오늘 1심 선고 공판 불출석키로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2시에 예정된 1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가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게 "오전에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하고 돌아와 선고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우선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가 2시간 이상 계속될 선고 공판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려운 상태인데,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입정·퇴정 등 모습까지 촬영돼 국민들은 물론 해외에까지 보여주는 것이 국격의 유지나 국민의 단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났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의 경호상 문제도 염려된다고 강 변호사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전남도, 무안 탄도·신안 우이도 '가고 싶은 섬' 개발

내년부터 5년간 40억 지원

전남도는 브랜드 시책인 '2019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으로 무안 탄도(왼쪽)와 신안 우이도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섬에는 내년부터 창의적 콘텐츠 발굴과 실행 등 섬 가꾸기 사업으로 5년간 총 40억원이 지원된다.

무안 탄도는 30가구 51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표고가 낮은 섬이다. 무안군 유일 유인도로 청정한 갯벌과 나치, 감태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 감태가 생산되는 겨울철이면 갯벌이 초록빛 갯벌로 변하는 모습이 장관이다.

무안 망운리 조금나루 선착장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접근성이 좋다. 탄도만의 특색 있는 테마 섬으로 가꿀 수

있는 적합하다. 특히 이번 공모에 참여한 섬 중 유일하게 자동차와 가족이 없는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안 우이도는 134세대 208명이 살고 있다. 자연이 빛나는 거대한 풍성사구(모래언덕)와 고운 모래가 펼쳐진 커다란 해변이 세 곳에 걸쳐 형성돼 있다. TV 프로그램 '섬총사'의 첫 촬영지로 더욱 유명해졌고 감성돔과 돌미역, 꽃게, 새우 등이 많이 나 먹거리가 풍성하다.

특히 조선시대 선착장이 원형을 유지한 채 남아있다. 정약전 유배지, 흥어장 수문속 생가, 최치원 바둑바위, 옛 돌담 등 역사와 전통문화 자원이 풍부해 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가능성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

'완도 당사도 등대' 국가문화재 등록

'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도

근대기에 건립된 '완도 소안면 구당사도 등대'가 국가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은 '완도 소안면 구당사도 등대',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를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4일 밝혔다.

등록문화재 제 731호로 지정된 완도

소안면의 옛 당사도 등대는 콘크리트로 축조된 백색의 건물로 근대기의 건축양식을 잘 보여준다. 또한 주변 바다 풍광과 조화를 이룰 뿐 아니라 항일운동의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1909년 소안도 주민과 의병들이 의거를 일으킨 장소이기도 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r

임야
지분물건/문중산 환영
바로합니다.010-3605-5000

투자자 모집
경/공매 입찰/낙찰물건
근저당/소유권이전으로 법적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게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펜션·가든 부지 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내 아이의 미래를 바꿀 교육 글로벌 에듀센터
순천 최대규모의 교육시설과 함께하실 **사업자 분들을 초청 합니다!!**
글로벌 에듀센터는 국제학교 개념으로 설립되는 대형 융복합 학원 교육시설입니다.
문의 : 02-502-8898 | 서울본사
글로벌 에듀센터 순천영광국제캠퍼스
총면적 11만 5천여㎡, 2018년 11월 준공 예정
▶ 1층: 입점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문구점, 약국, 편의점, 안경점 등
▶ 2층, 3층: Kids Cafe, 영어도서관, 스피치학원, 입시상담, 심리상담(치료), 유학컨설팅, 과학, 레고, 로봇 등
▶ 권리가 없이 시세로 임대 100%전세도 환영
임대가 평균 600만원(전세가능)
성심부동산 010-6665-7355 대표 김종호